

지구화시대 한국사회의 문화변동과 세대갈등

김성건(서원대 교수/종교·문화사회학)

I. 서론

지난 198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불기 시작한 ‘세계화’(지구화, globalization)는 한동안은 외부에서 불어오는 변화의 바람이었다. 그러나, 얼마 전 21세기가 시작된 현시점에서 볼 때 세계화는 이미 우리의 생존을 규정하는 흐름이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방식 그 자체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세계화는 기든스(Anthony Giddens)의 지적처럼 현재 우리 삶의 양식을 매우 심오한 방식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세계화는 본래 서구에 의해 유도되고 있고, 특히 미국이 행사하는 정치적·경제적 힘의 강한 흔적을 갖고 있으며 현재 지구촌에서 그 결과는 매우 고르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세계화는 단순히 비서구에 대한 서구의 지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국가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만큼이나 미국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세계화는 또한 세계 규모로 일어나고 있는 사태에 영향을 끼치는 것과 같은 정도로 우리의 일상생활을 좌우한다. 그리고 세계화로 인해서 세계 시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측면 못지 않게 중요한 측면은 이 세계화가 세계의 대부분 지역에서 전통적인 생활양식과 문화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중압과 긴장의 원인 곧, ‘문화변동’(cultural change)의 근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세계화에 관한 국내·외의 담론은 주로 경제적·정치적 세계화에 대한 것으로 집중된 반면, 세계화의 ‘문화적’ 측면 곧, ‘문화적’ 세계화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무시되고 있다.

한편, 세계화의 영향에 전면적으로 노출된 동아시아 지역의 중심에 남북이 분단된 반도국으로 자리한 작금의 한국사회가 보여주는 특이사항 혹은 이상징후 중 가장 눈에 띄는 것, 달리 말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가운데 사회학적으로 가장 심각한 것으로서 최근 일고 있는 문화변동과 관련된 ‘세대갈등’(generational conflicts)에 주목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최근 출판되어 세간에 화제를 불러모은 송호근 교수(서울대/사회학)의 <한국,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삼성경제연구소, 2003)에서 구체적으로 잘 나타난 바 있다. 작년 말 일반의 예상을 뒤엎고 노무현 정권을 탄생시킨 원동력이 이른바 2030세대의 전략적 열광에서부터 비롯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로써 세대전(世代戰)으로서의 지난 대통령 선거는 산업사회에서 청년기를 보낸 5060세대의 ‘성장시대’ 가치관이 퇴조하는 대신 지구촌화된 정보사회에서 자라난 2030세대의 ‘유동성’ 문화가 형성되었음을 확실히 보여준 우리 사회의 총체적 전복(顛覆)을 의미한다. 이처럼 한국사회는 현재 예전과는 질적으로 사뭇 다른 급속한 ‘세대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최근 실시된 대통령선거 결과에서 표현되었듯이 젊은 세대, 장년, 고령세대의 ‘정치적’ 태도의 경계는 뚜렷하다. 아울러 세계화와 정보화가 갖다준 ‘개방’의 가치관과 함께 20세기 초이래 전지구적으로 일고 있는 ‘성(性)의 혁명’의 추세 속에서 한국 사회의 드

라마(예: '앞집 여자')와 영화(예: '바람난 가족') 등을 통해 체현된 불륜의 '바람' 문제와 그에 따른 이혼 등에 대한 젊은 세대의 수용적 태도에서 잘 나타나듯이, 젊은 세대와 장년이상 세대간의 '문화적' 태도의 경계도 대단히 뚜렷하다.

일반적으로, 가치관, 정치의식에 있어서 세대차이는 사회·문화적으로 획득한 세대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사회학에서 '세대'(generation)는 '사회계급'이나 '사회적 성'(gender)만큼이나 문화와 행동에서 나타나는 개인차와 집단차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것으로 점차 부각되고 있다. 그중 특히 정치사회학에서 정치적 행동은 세대와 밀접하게 상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기본적 인식을 토대로, '지구적 관점'(global perspective)¹⁾속에서 이루어질 본 연구의 목적은 한편으로는 세계화 혹은 지구화 그리고 정보화 과정과 다른 한편으로는 현대 문화 양자간의 결코 단순하지 않은 복잡한 관계가 2003년 말의 현 한국 사회에서 상당히 뜨거우면서도 민감한 쟁점인 '세대갈등'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경험적 수준에서 심층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밝히고, 아울러 사회문제로서 세대갈등의 극복방안을 기독교적 관점 속에서 새롭게 모색하는데 있다. 세계화의 '문화적' 차원에 주목하여 수행될 본 연구는 그동안 한국의 세대갈등을 다룬 연구들이 한국사회에 외적인 세계화 및 정보화가 초래한 급격한 문화변동보다는 주로 우리 사회의 내적 원인(예: 정치적 사건, 역사적 경험 등)에 치중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의 산물이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본 논문의 주제이자 키워드중 하나인 '세대'와 관련되는 기존 연구들²⁾에 대한 간단한 종합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 사회과학계에서 세대문제에 대한 관심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1980년대에 임희섭(1982) 교수에 의해 세대문제의 기본 개념과 한국사회에서의 세대차이에 관한 개괄적 논의가 이루어진 이래, 1980년대 후반에는 전후(戰後) 세대의 가치관을 인문·사회과학의 여러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조명하였고(안청시·최일섭, 1987), 1990년대에는 세대차이에 대한 한국사회학회(1990) 주관의 전국표본조사가 행해지기도 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03년에는 한국사회학회에서 발행하는 <한국사회학>에 세대관계의 다양성과 구조에 대한 연구(박경숙, 2003)와

1) 이 '지구적 관점'과 긴밀히 연관되는 것으로서, 현재의 '세계화'나 '지구화'에 초점을 두고 그 쟁점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글로서, 박병영, "지구화, 역사적 전환, 그리고 그 쟁점", <현상과인식>, 한국인문사회과학회, 제27권 3호 통권 90호, 2003년 가을호, 9-28쪽을 볼 것.

2) 이후 본 서론에서는 다음의 학자들의 연구에 대하여 차례로 언급하게 될 것이다(각주의 숫자를 줄이려는 의도로 여기서 한테 모아 제시하였음을 밝힌다). 임희섭, "사회변동과 세대차의 문제," <한국사회발전연구>, 정음사, 1982, 105-116쪽; 안청시·최일섭, <전후세대의 가치관과 이념>, 집문당, 1987;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의 세대문제>, 나남출판사, 1990; 박경숙, "세대관계의 다양성과 구조," <한국사회학>, 2003년 제37집 2호, 61-94쪽; 박재홍, "세대 개념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학>, 2003년 제37집 3호, 1-24쪽; 박재홍, "기성세대의 생애사와 세대차이 인지에 관한 연구: 질적 접근," <한국사회학>, 1999년도 제33집 가을호, 257-296쪽; 조대엽, "386세대의 문화와 세대경험," 임희섭 외, <한국의 문화변동과 가치관>, 나남출판사, 2002, 249-280쪽; 한완상, "세대문제", 한완상·권태환 편저, <전환기 한국의 사회문제>, 민음사, 1996, 317-337쪽; Park Byeong-Chul Ben, "Politicization of Youth on Korean College Campuses: Thoughts about Theories of Youth Activism," *Discourse 201*(담론201), 한국사회역사학회, 제14집, 2003, 110-139 쪽; 함인희, "베이비붐 세대의 문화와 세대 경험," 임희섭 외, <한국의 문화변동과 가치관>, 나남출판사, 2002, 215-248쪽; 박길성, "N세대의 문화와 세대경험," 임희섭 외, <한국의 문화변동과 가치관>, 나남출판사, 2002, 281-306쪽.

세대개념에 대한 연구(박재홍, 2003)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등 '세대사회학'(the sociology of generation)이 갑자기 부각되면서 그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세대'(generation) 개념을 보다 명료하게 만들고 이를 폭넓게 활용하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세대 담론의 견지에서 보면, 90년대 초반에는 신세대 담론이, 2000년 무렵에는 386세대 담론이 등장하여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고 또한 다양한 학술적 논의를 촉발하기도 하였다.

구체적으로, 최근에는 기성세대의 청소년기 경험이 세대특성이나 세대차이 인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생애사적으로 접근한 연구가 행해진 바 있다(박재홍, 1999).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개인의 생애사에 대한 회고담을 자료로 삼아 양자간의 관계를 추론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종단적(longitudinal) 연구설계를 취하는 후속 연구에 의해 이들 요인간 관계에 대한 검증 작업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만하임(Karl Mannheim)³⁾의 '실제세대', '세대단위'의 개념을 한국의 현실에 적용한 사례로서 1960년대에 태어나 1980년대 격동기에 대학시절을 보낸 소위 '386세대'가 청년기의 경험,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해석, 그 밖의 세대특성 면에서 상당히 동질적이고 공동체적 연대감도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는 경험적 증거를 밝힌 연구(조대엽, 2002)가 있다. 또한, 정치사회학의 입장에서 최근 이루어진 연구로서 한국 사회에서 기성 권위를 반대하는 중요한 세력으로서 대학운동을 분석한 연구(한완상, 1996) 및 같은 맥락에서 학생운동이 어떻게 발전되었는지를 만하임의 '세대단위' 개념을 활용하여 경험적으로 분석한 연구(Park, 2003)가 있다.

이로써, 현재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세대사회학의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면, 대체로 이들 연구들은 한 세대가 공유하는 '사회적 경험'은 그 세대의 물질적 기회뿐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아래 수행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식민통치, 해방 후 정치·사회적 혼란, 6·25 전쟁, 급속한 경제개발, 1980년 광주사태, 1987년 6·29 선언, 1997년 말 IMF 사태, 2002년 월드컵 등 압축적 사회변동을 경험한 우리 사회에서 세대 차이의 심각성이 논의될 만큼 세대는 사회갈등과 사회계층화의 중심 축을 이룬다는 것을 잘 밝혀낸 것들이라 하겠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이처럼 주로 '사회변동과 세대문제'에 주목한 나머지 21세기의 키워드로 부상한 '문화' 측면의 거시적 변동과 그로 인한 세대문제에 대해서는 약간의 예외(예: 함인희, 2002; 조대엽, 2002; 박길성, 2002)를 제외하고는 아직 거시적 수준에서 세계화이론과 문화변동을 연결하여 본격적 수준에서 한국의 세대갈등 문제를 논의한 것은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최근 국내·외 매스컴이나 관련 학계에서 이른바 '문화전쟁'(Culture War)으로까지 부각되고 있는 지구화 시대 문화변동 현상과 한국의 세대갈등을 상호 연결지어 심층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하는 본 연구는 일정한 의미를 지닌다 할 것이다.

II. 지구화시대 문화의 구조변동

3) Karl Mannheim, *Essays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52.

1. 세계화 추세 속에 출현하고 있는 새로운 문화적 경향들

최근의 세계화 추세 속에서 출현하고 있는 새로운 상호 연관된 ‘문화적’ 경향들 중 주목할 측면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첫째, 우리는 세계화에 따른 ‘시간과 공간의 재구성’ 혹은 ‘새로운 시·공간의 경험’을 중시할 수 있다. 이것은 지리학자 하비(David Harvey)에 의해서 주창된 ‘시간-공간의 응축’(time-space compression)을 말한다.⁴⁾ 시간과 공간 응축의 현실적인 의미는 ‘내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절대적 위치(absolute location)의 관념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대신 ‘내가 다른 지역과 연결되어 있는가, 있다면 어떻게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는가’하는 상대적 위치(relative location)가 현대사회 운영의 중심 개념이 된다.⁵⁾ 그야말로 시간과 공간의 재배열인 것이다. 이로 인해 개인의 삶에 대한 지역적 상황의 구속력은 급속히 약화되며, 국가 영토에 기반한 민족국가(nation-states) 관념의 무력화는 가속된다.⁶⁾ 결국, 세계화는 ‘시간과 공간의 응축’이라는 측면에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새로운 경험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현재 세계화이론가로 명성을 날리고 있는 사회학자 로버트슨(Roland Robertson)이 적시하였듯이,⁷⁾ 우리는 이전 시기의 국가 간 상품 교역 등 단순한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와는 달리 이 시대의 세계화는 세계적 상호 의존과 ‘전체로서의 세계라는 의식’(global consciousness)의 팽배와 같은 주관적 측면에 의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을 주목할 수 있다.⁸⁾ 로버트슨에 따르면, 세계화의 출현에 따라 인류사회의 작동방식과 그 속에서의 삶의 틀이 ‘근대성(modernity)의 논리’에서 ‘세계성(globality)의 논리’로 바뀌고 있다.

따라서 세계화 시대 문화의 구조 변동은 세계사회의 ‘다원화’와 세계적 공존으로서의 ‘다양성’ 심화를 의미한다. 즉, 세계성의 논리 속에서 모든 것은 세계라는 단일 공간 위에 펼쳐지면서 상대방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공존’의 이해로 평가된다. 그로부터 세계화가 경제뿐 아니라 정치·사회·문화 등 사회적 삶의 전(全)부분에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로버트슨을 위시한 전폭적인 세계화론자들⁹⁾은 세계화는 서로 다른 역사와 문명을 지닌 사회와 사람들을 한데 아우르는 ‘전(全)지구적 체계’로서의 세계를 지

4) David Harvey, *The Conditions of Postmodernity*, London: Blackwell, 1989, p. 291 and p. 298.

5) 박길성, <세계화: 자본과 문화의 구조변동>, 나남출판사, 1998, 62-63 쪽.

6) 위의 책, 63쪽.

7) Roland Robertson, *Globalization: Social Theory and Global Culture*, London: Sage, 1992.

8) 박길성, 앞의 책, 49 쪽.

9) 한편, 세계화를 부정적으로 보는 논자들은 대부분이 좌파 진영의 학자들로서 오늘날의 세계화 역시 인류가 지난 한 세기 동안 가졌던 절곡의 역사에 불과하다고 본다. 한 예로서, Paul Sweezy, *Globalization: To What End?*, *Monthly Review*, vol. 43, no. 9/10 을 볼 것. 이러한 주장은 무엇보다도 ‘경제의 세계화’에 집중되어 있다. 즉, 오늘의 세계화의 태동은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 최고조에 달했던 자본주의의 축적 위기에 대한 재구조화에 기인하는 만큼, 세계화의 준동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자본의 이해가 매우 강렬하게 표면화된 것이라고 이들은 본다. 따라서 그 결과는 선진 자본의 이해쪽으로 편향될 수 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즉, 세계 자본주의의 재구조화의 다른 표현에 불과한 세계화는 서구 중심부 경제, 중심부 자본에 의해 주도되는 과정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그런데 “세계화 논의의 어려움은 무엇보다도 세계화가 완결된 현상이 아니라 아직도 다양한 가능성을 내포하는 미완결의 진행 과정이라는 점에서 비롯된다.” 박길성, 앞의 책, 29-30쪽에서 인용함.

향한다는 것이다.

세제, 세계화의 추동력을 주로 자본주의에서 찾는 왈러스타인(Immanuel Wallerstein)¹⁰⁾과는 달리, 로버트슨과 비슷하게 세계화의 추동력을 다원(多元) 인과 논리에서 찾는 기든스는 세계화를 근대성의 기본적 결과중 하나라고 인식하면서 이른바 ‘반성적(성찰적) 근대성’(reflexive modernity)과 이것에서 파생되어 출현하고 있는 ‘삶의 정치’(life politics)를 새로운 문화적 경향으로서 주목하고 있다.¹¹⁾ 기든스에 따르면, 우리는 근대화 초기 국면과는 달리 오늘날 세계화된 사회과정에 노출된 결과 전보다 ‘반성의 능력’이 한층 제고되었다. 이것의 주된 결과로서 우리들 가운데서 예전보다 더욱 ‘개인적’ 성취와 만족을 기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즉, 근대성에 관한 반성 능력의 제고는 지구촌의 사람들 편에서 다양한 대안적 혹은 변형된 삶의 양식을 만들도록 작용하고 있다. 서구의 경우 그 결과는 한편으로는 이른바 ‘뉴 에이지 여행’(new age travelling) 같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채식주의’(vegetarianism) 같은 훨씬 더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유형으로 출현하고 있다.¹²⁾

이로써 지난 19세기이래 20세기 초에서 중반까지 출현한 ‘사회적 해방’을 위한 투쟁을 오늘의 후기 근대성이 계승한 것이 바로 ‘개인적 성취 혹은 해방’을 추구하는 ‘삶의 정치’라고 부를 수 있다. 기든스의 말을 빌리면, ‘삶의 정치’는 ‘해방적 정치’의 그늘로부터 출현한 것, 즉 개인 및 집합체 두 수준에서 ‘인간의 자기실현’(human self-actualization)에 관한 것이다.¹³⁾ 만일 ‘코카콜라화’(CocaColanization)와 ‘맥도날드화’(McDonaldization) 같은 것으로 운위되는 ‘세계의 미국화’(the Americanization of the world)가 소비주의(consumerism)와 포드주의적 상품 생산을 포함하여 물질적인 의미에서 근대성의 정점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면, 기든스가 말하는 ‘삶의 정치’는 이 같은 근대성에 대한 반성적 반응을 대표하는 것이다.¹⁴⁾ 이런 ‘삶의 정치’는 물질주의적 차원에서 유연한 후기포드주의적 상품생산(post-Fordist manufacturing)이 갖다주는 것처럼 보다 많은 ‘개인적 선택’을 요구하고 동시에 또한 최근의 평화운동(peace movement), 페미니즘(feminism), 환경주의(environmentalism) 등이 잘 드러내듯 근대성과 소비주의에 대한 비판적 반응을 요구한다.

네제, 세계화와 그리고 최근에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정보화’로 인하여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문화적 경향으로서 앞의 세 가지 추세와 한데 맞물려 있는 것으로 우리는 학계에서 아직도 논쟁을 자아내고 있는 이른바 ‘포스트모더니티’(postmodernity)의 이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계화와 포스트모더니티의 이념 양자는 근대화의 과정이 20

10) Immanuel Wallerstein, *The Politics of the World Econom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Geopolitics and Geocultu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11) Anthony Giddens, *The Consequences of Modernity*, Cambridge: Polity Press, 1990; *Modernity and Self-Identity: Self and Society in the Late Modern Age*, Cambridge: Polity Press, 1991 및 같은 이의 “Living in a Post-Traditional Society.” In Ulrich Beck, Anthony Giddens and Scott Lash, *Reflexive Modernization: Politics, Traditions and Aesthetics in the Modern Social Order*, Cambridge: Polity Press, 1994, pp. 56-109 볼 것.

12) Tony Spytbey, *Globalization and World Society*, Cambridge: Polity Press, 1996, p. 9.

13) Giddens, *Modernity and Self-Identity*, p. 9.

14) Spytbey, *Globalization and World Society*, p. 10.

세기 동안에 거의 전(全)세계로 확산되면서 전면에 나타나게 되었다. 그중 포스트모더니티의 이념은 모더니티(modernity)의 한계와 문제에 직면함으로써 촉발되었다.¹⁵⁾ 료타르(J. F. Lyotard)에 따르면,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이 마련된 것은 지난 1960년대에 시작된 일련의 전지구적 변화 - 예로서, 정보 테크놀로지, 컴퓨터화, 지식의 상업화 등 - 로부터였다.¹⁶⁾ 여기에다 앞의 하비가 언급한 '시간과 공간의 응축'으로 인한 자본의 회전 시간의 단축, 냉전 및 핵무기 확산의 공포가 종식된 것, 근대 국가들이 직면한 복합문화와 다(多)종족의 상황 그리고 탈물질주의적 가치가 예전보다 한층 더 강조된 것 등의 전(全)지구적 변화들이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이라 할 수 있는 '불확실성'(uncertainty)에 관한 인류의 의식을 증대시키는데 이바지하였다.¹⁷⁾

포스트모더니즘과 모더니즘 사이의 관련을 둘러싸고 아직도 다양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¹⁸⁾, 우리는 1960년대에 미국을 중심으로 부각된 일련의 과정 속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은 다음 네 가지의 특성을 갖는 잠재적으로 아방가르드적(avantgardist)인 문화적 형태로서 일단 정리해볼 수 있다: (1) 미래 지향적이며 혁신적인 세속적 상상 (2) 제도, 조직 및 예술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우상과괴적 공격 (3) 때때로 행복감 위에 자리잡은 기술적 낙관주의(technological optimism) (4) '고급 문화'(high culture)에 대한 도전으로서 '대중 문화'(popular culture)의 증진.¹⁹⁾

다섯째, 마지막으로 세계화의 문화적 차원으로서 간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은 이른바 '글로벌 문화'(a global culture)라는 이념을 향한 '문화적 동질화' 과정과 전(前)근대적 전통과 관련된 '문화적 이질화' 과정간의 긴장이다.²⁰⁾ 이는 다른 말로 한 편으로는 '모더니스트의 동질화'와 다른 한편으로는 '종족문화적 파편화'가 지구촌의 현실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두 가지 추세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현재 지구촌의 많은 나라에서는 '근대성' 내에서 '전통'의 지속적인 재활성화의 표현이 나타나고 있다.²¹⁾ 이런 맥락에서 근대성의 부정적 결과를 주목한 종교사회학자 버거(Peter Berger)와 벨(Daniel Bell)은 최근 그로부터 그 해결책으로서 '전통'의 재구성 및 재구성을 강조한 바 있다.²²⁾

15) 그래서 기든스 같은 이는 포스트모더니티를 '근대성을 뛰어넘는'(beyond modernity) 삶의 유형으로 제시한 바 있다. Anthony Giddens, *The Consequences of Modernity*(1990)을 참고할 것.

16) J. F. Lyotard, *The Postmodern Condition: A Report on Knowledge*,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86.

17) Barry Smart, *Postmodernity*, London: Routledge, 1993, p. 137.

18) 이 논쟁에 대해서는 위의 책, 16-20 쪽을 볼 것.

19) 위의 책, 19쪽에서 인용함. 한편, 모더니즘의 옹호자로 알려진 영국 런던대 홉스봄(Eric J. Hobsbawm) 역시 "포스트모더니즘 이론은 모든 것을 상대화한다.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지성적, 과학적, 합리적 성취를 파괴하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해서 앞의 4가지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을 지지한 바 있다. 한겨레 21세기 특별기획, <새 천년, 새 세기를 말한다>, 한겨레신문사, 1999, 제1권, 20 쪽 볼 것.

20) A. Appadurai, *Disjuncture and Difference in the Global Cultural Economy, Theory, Culture and Society*, Vol. 7, No. 2 and 3, 1990.

21) J. Arnason, *Nationalism, Globalization and Modernity, Theory, Culture and Society*, Vol. 7, No. 2 and 3, 1990.

22) Peter Berger, *The Heretical Imperative: Contemporary Possibilities of Religious Affirmation*, New York: Doubleday, 1980; Daniel Bell, *The Cultural Contradictions of Capitalism*, London: Heinemann, 1976. 그리고 버거와 벨의 시각을 따라서 현대의 문화적 흐름으로서 전통의 재발견을 강조하고 있는 글

2. 문화의 세계화와 그 사회적 함의

이제 이상의 기본적 이론적 논의를 배경으로 ‘문화의 세계화’(the globalization of culture)와 그것이 초래하고 있는 ‘사회·문화적 변동’의 현실적 함의에 초점을 모아 논의하여 보고자 한다. 지난 1980년대 말 탈냉전시대의 개막과 함께 단연 괄목할 만한 현상으로 출현한 ‘세계 시장(world markets)의 세계화’는 이미 19세기 중반 맑스(K. Marx)와 엥겔스(F. Engels)²³⁾가 주목한 바와 같이 국가 간 ‘상호의존’을 증대시킨 그야말로 지난 10여 년의 시간을 가장 대표한 사건이었다. 산업화가 이루어진 선진국은 그들의 삶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발도상국의 시장은 물론 산업 원자재와 제조 상품 및 노동력에 한층 더 의존하게 된 반면, 개발도상국의 경제는 산업화된 나라들과 그들을 한데 묶어주는 무역 네트워크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다. 그 결과로서 현대 사회생활을 특징지어주는 측면으로서 급속도로 발전하고 계속 밀도가 높아지는 상호연관과 상호의존의 네트워크가 곳곳에서 나타나게 되었다²⁴⁾

기든스는 앞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세계화를 근대성의 근본적 결과 중 하나라고 인식한다. 그에 따르면, 세계화는 근대화의 과정을 강화하고 있다. 즉, 세계화 과정 속에서 서로 다른 사회적 환경 혹은 지역들 간의 연관의 양식이 전체로서 지구의 표면 전역에 걸쳐 그물처럼 연결되고 있다²⁵⁾ 이 같은 상호연관 과정은 인터넷, 이동전화와 여타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그리고 위성TV 같은 뉴 미디어에 의해서 가속화되고 있다. 앞에서 열거한 매체들은 국가 경계를 뛰어넘는 것이며 커뮤니티들 간에 새로운 교환 유형을 창조하고 있다. 새로운 컴퓨터 기술과 함께 방송 미디어가 사회들 간에 그리고 전지구적 수준에서 혁신과 근대화의 과정을 확장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비가 말하는 ‘시간과 공간의 압축’(응축)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그 같은 기술적·경제적 발전은 ‘문화적’ 영향을 낳는다. 사회·문화적 관점으로부터 볼 때, 세계화는 사회적·문화적 제도나 질서에 대한 지리적 제약이 물러나고 세계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지리적 제약이 퇴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과정이다²⁶⁾ 이로써 세계화는 지역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던 예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벗어나서 무한한 시간과 공간을 가로질러 사회적 관계가 재구성되는 것을 수반하는데, 이 같은 측면을 기든스는 일찍이 근대성의 주요한 동력이라고 보았다.²⁷⁾ 발전된 기술과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가 세계의 서로 다른 영역에 급속도로 정보를 전해주는 관계로, 이제 개인들은 그들이 예전에는 도저히 알 수 없었던 다른 문화권 및 다른 시간대의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된다. 이로써 오늘날 개인들은 지역 커뮤니티들의 규범과 가치들에 대해서 예전처럼 더 이상 구속되지 않게 되어, 그 결과로 일종의 ‘아노

로서 즐고, “현대의 사회문화적 위기와 전통의 재발견,” <종교와 이데올로기>, 민영사, 1991, 제3장 특히 71-76 쪽을 볼 것.

23) Karl Marx and Friedrich, Manifesto of the Communist Party, London: Lawrance and Wishart, 1934, p. 12.

24) John Tomlinson, Globalization and Culture, Cambridge: Polity Press, 1999, p. 2.

25) Giddens, Modernity and Self-Identity, p. 64.

26) Malcom Waters, Globalization, London: Routledge, p. 3.

27) Giddens, Modernity and Self-Identity.

미'(anomie)가 출현한다.

글로벌 커뮤니티들과의 상호작용은 의심할 여지없이 종래 우리들의 것과 다른 문화적 관행의 흡수는 물론 자신들의 전통에 대한 회의(懷疑)를 촉진한다. 그 결과 특징의 공간과 시간에 묶여있는 전통적인 사회적 결속의 붕괴가 가속화된다. 그로부터 다양성이 출현함에 따라 사회적 관행을 정의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 이것은 개인들로 하여금 개인의 사적(私的) 변동과 사회변동 양자를 연결시키는 성찰의 과정의 한 부분으로서 '변화된 자아'를 추구하고 만들어야만 하기 때문에 의사 결정을 위해서 예전보다 한층 더 큰 범위를 수용하도록 만든다. 이 같은 상황 하에서, 사람들이 선택의 다양성에 직면하였을 때 그들의 사고와 행위를 이끌어주는 자아 성찰성이 전보다 더욱 요구되게 된다.

세계화 아래에서 개인들의 자아는 일찍이 짐멜(G. Simmel)이 적시(揭示)한 것으로서 훨씬 '개별화'(개체화)되는 경향이 있다. 고전 사회학자들 중 오늘날 '문화적' 세계화에 가장 근접하는 근대성(modernity)관을 가졌다고 평가되는 짐멜은 당시 도시를 중심으로 전개된 근대적 삶의 양식을 관찰하였고, 근대성은 사람들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공간과 시간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물론 화폐나 신용카드를 매개로 한 교환의 속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보았다.²⁸⁾ 최근에 들어 짐멜의 업적은 권위의 탈중심화, 사람들의 개별화, 구조로부터 개인들의 분리, 문화의 다양성과 이질성의 증대, 위계와 권위의 쇠퇴 및 여타의 '근대 이후'(after modernity)의 사회적 특징을 포괄하는 '포스트모던적 실재관'을 강조하는 학자들에 의해 수용되고 있다.²⁹⁾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실은 짐멜이 그의 저작 전반에서 '개별화'가 당대의 대부분의 다른 이론가들이 강조했던 것처럼 항상 병리적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는 점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짐멜은 현대사회에서 사회적 분화는 사회관계를 확립할 때 비귀속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사용하도록 촉진시킨다고 보았다. 사회적 분화 그 자체와 더불어 그러한 기준의 사용은 집단, 특히 '이차집단'(secondary groups)의 증가를 촉진시킨다. 비귀속적/합리적 기준 및 집단의 증가는 모두 개인에 대해 집단귀속의 '다중성'(多重性)을 자극하며, 각 개인은 그 결과 인성의 '개별화' 즉, 더욱 독특하고 '개인주의적'이 된다. 개인들이 전통적이고 종교적인 내용을 상실해감에 따라 그것은 법률, 지성의 힘, 논리, 그리고 화폐 등과 같은 몰인격적 기준에 의해 매개되기 시작한다. 이런 기준들의 적용은 어떤 면에서는 개인적 자유나 사회적 정의를 증대시킨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삶을 보다 덜 정서적이고 덜 몰입되게 만들기도 한다. 그것은 사람들간의 관계를 종교적 상징이나 오래된 전통과 더불어 존재했던 정서적 유대가 결여된 합리적 계산들로 환원시킨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9·11사태 이후 가톨릭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세계화와 종교'에 주목하면서 오늘날 실시되고 있는 세계화의 문제는 본래 세속적이지 않고 또한 세속적인 것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문화들 속에서조차 '세속화'를 고양시키는데 있다고 경고하였다. 교황에 따르면, 현재의 세계화는 세계 각 지역의

28) Anand Kumar and Frank Welz, "Approaching Cultural Change in the Era of Globalisation: An Interview with T. K. Oommen, Social Identities, Vol. 9, No. 1, 2003, p. 102.

29) 조나단 터너 외, <사회학이론의 형성>, 김문조 외 옮김, 일신사, 1997, 349-350쪽.

사람들 가운데서 그 동안 그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공한 사회적 규범과 '문화적 기준점'(the cultural points of reference)을 앗아가 버리는 문제를 만들어 내고 있다.³⁰⁾

짐멜에 따르면, 지폐나 신용이 지배적이 됨에 따라 사회관계는 심각한 변화를 겪게 된다. 즉, <돈의 철학>에서 짐멜은 "돈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교환의 비율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가치 또한 증대시킨다. 포기하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사람들은 교환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교환의 비율이 더 커질수록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와 욕구가 실현되리라고 생각하기가 그만큼 더 쉬어지는 것이다."³¹⁾고 말한다. 그로부터 짐멜은 현대사회에서 사회관계에 대한 보편적인 '양화'(quantification)와 '객관화'(objectification)가 존재하는데, "상호작용은 그것의 가치가 돈으로 표현됨으로써 양화된다. 그 결과 무엇이 가능한가를 결정하는 도덕적 제약은 쇠퇴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뒤르켐의 용어를 빌자면 돈은 아노미를 증가시킨다고 할 수 있다. 돈은 사람들을 전통과 도덕적 권위의 제약에서 해방시킨다. 돈은 개인의 지향이나 욕구를 제한하기가 아주 힘든 그러한 체계를 창조해낸다. 그러므로 '일탈'과 '병리'는 화폐가 상호작용의 지배적 매체가 되어 있는 체계에서 더욱 발생하기 쉽다."³²⁾고 말하여 결국 오늘의 지구화시대에 이른바 '글로벌 경제'의 주역인 화폐는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축복'과 '재앙'을 동시에 가져다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기든스도 <근대성과 자아정체성>에서 짐멜과 같이 앞에서 설명한 개인들의 자아의 '개별화'는 근대성의 도래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본다.³³⁾ 즉, 근대성의 도래는 전통의 의미의 감소를 갖다주며 또한 개인간의 접촉의 감소와 지역 커뮤니티의 보호적 틀의 붕괴를 초래한다. 지구화시대에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커뮤니케이션의 영향이 증가함에 따라, 물리적인 대면적 상호작용의 필요는 점점 감소하게 된다. 그로부터 그동안 인류 문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가족 같은 일차집단(primary groups)의 역할이 대폭 축소되어 인터넷 기술의 잠재적 역기능이 최근 부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개인들은 예전보다 한층 더 그들의 '자아정체성'(self-identity)을 정립하는데 혼란을 겪으면서 각종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벡(Ulrich Beck)이 말하듯이³⁴⁾, 현대사회의 근본적 측면으로서 '위험'과 '불확실성'이 뚜렷이 존재하는 한, 자아의 안전 체계(보호장치)가 쉽게 부서지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의 지구화시대에 사람들은 자신만의 고유한 삶의 양식을 개발하려 애쓰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그들 자신의 개인적 정체성을 창조하는데 짐멜이 지적한 화폐가 지배하는 오늘의 글로벌 경제 상황을 반영하듯 점점 더 '소비패턴'(예로서, 선진국의 경우 채식주의나 마약중독)을 통해 정의하고 있다는 측면이다.

이런 맥락에서, 패더스톤(Mike Featherstone)에 따르면³⁵⁾, 전지구적 소비가 일상화된 이른바 '소비사회'인 오늘의 소비문화 속에서 한 개인의 소비 행동은 단순히 소비되는 품목의 물질적 가치 이상의 의미를 갖는 '상징적'인 것이다. 자본주의 체계의 이익지향

30) M. A. Casey, "How to Think About Globalization," First Things, no. 126(Oct. 2002), pp. 47-56.

31) Georg Simmel, Philosophy of Money, Bost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78, p. 292.

32) Simmel, Philosophy of Money, p. 404.

33) Giddens, Modernity and Self-Identity.

34) Ulrich Beck, Risk Society: Towards a New Modernity, London: Sage, 1992.

35) Mike Featherstone, Consumer Culture and Postmodernism, London: Sage, 1991.

적 속성은 사람들의 자아상을 변화시키고 '필요한 것'(needs)보다는 '원하는 것'(wants)의 방향으로 계속 그들의 소비를 복돋우는 것에 의해서 이들을 소비자로 변형시킨다. 이로써 라이프 스타일, 패션 및 취향은 물론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선택이 시장에 공급되어 그것들을 소비자들이 택하도록 주어진다. 이 과정에서 글로벌 마켓은 수요를 이끄는 것이 아닌 공급을 이끄는 것으로 변모된다. 소비가 사회구조를 반영하는 소비의 능력을 상징화하기 때문에, 소비사회의 소비문화 아래에서 소비는 자아 표현의 주요한 형식이며 정체성(identity)의 주요한 근원이 된다.³⁶⁾

요약하면, 공간과 시간의 응축과 그로 인한 새로운 시·공간의 경험을 제공하는 세계화와 대면적 인간관계보다는 컴퓨터와 인터넷이 지배하는 기술합리적 사회를 지향하는 정보화는 한편으로는 사람들을 환경이나 평화 등과 같은 전지구적 쟁점에 대해 한층 더 의식(意識)을 갖도록 만든다.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세계화와 정보화는 사람들 가운데 개별화(개인주의화)를 증대시키며 또한 전통적 사회적 관계와 규범에서 벗어나게 하는 현상을 급속도로 초래하고 있다. 그로부터 전통적 사회와 가족 같은 일차집단은 점점 약화되고, 사회전반 그 중에서도 특히 이른바 'I. T.혁명'(정보통신 혁명)으로 상징되는 격동하는 사회·문화적 변동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를 수용하는 감수성 높은 젊은 층에 심각한 수준의 아노미 즉, 무규범(가치의 진공상태)을 갖다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세계화와 그 핵심을 차지하는 정보화는 일반 사람들 특히 젊은 층에게 한편으로는 개인적/사회적 정체성의 위기를 갖다주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동시에 이런 정체성 위기를 글로벌 경제가 불러일으킨 소비의 패턴에 기초한 라이프 스타일을 자아 의식적으로 창조하는 것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는 수단 양자를 만들어주고 있다.

III. 한국사회의 문화변동과 세대갈등: 사회학적 관찰

1. 한국의 세대변화: 주요 세대들(베이비붐 세대, 386세대, N세대)의 문화경험을 중심으로

최근인 2002년에 출판된 <한국의 문화변동과 가치관>(나남출판)의 머리말에서 임희섭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변동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다수가 경제발전, 계급구조, 국가-시민사회 등 이른바 구조적 접근방법에만 집중되었다는 점에서 큰 아쉬움이 남는다. 외형적으로는 서구 선진국에 결코 뒤지지 않는 경제구조와 사회제도를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부패, 정경유착, 연고주의, 지역감정, 학벌주의와 같은 전근대적이고 병리적인 사회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은 사회구조라는 하드웨어를 지탱해주고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라 할 수 있는 문화나 가치관이 아직 근대적이고 성숙된 내용으로 확립되지 않은

36) Waters, Globalization, p. 140.

데서 연유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 책은 우리 학계에서 아직 본격적으로 전개되지 않았던 문화와 가치관의 변동이라는 틀에 입각하여 한국사회의 구조와 동학을 성찰적으로 이해하고 미래 사회변동의 상을 조심스럽게 조망하려는 문제의식 속에서 마련되었다.

이렇듯 그동안 많은 사회과학자들이 다양한 연구관심에 입각하여 한국사회의 구조와 동학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해석과 설명을 추구했으나, 한국사회의 문화변동과 가치관을 다룬 연구들 중에서도 특히, 최근에 앞으로 한국사회의 균열을 야기할 주요 축으로서 지목되고 있는 '세대'를 '문화경험'의 측면에서 다룬 연구들은 거의 부재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맥락에서 현대 한국사회가 목도하는 문화전쟁과 세대갈등을 논하기에 앞서 필자는 우선 한국인의 삶의 모습을 '문화'와 '세대경험'이라는 다소 독특한 관점에서 살펴본 기존의 세 연구(함인희, 2002; 조대엽, 2002, 박길성, 2002)에 간략히 주목해볼 것이다. 이 세 연구는 현재 우리 사회의 인구학적 근간을 구성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 386세대, N세대의 문화경험을 통해 한국사회의 발전과정을 사회 내의 실질적 행위자를 중심으로 각기 이해하고자 시도한 신선한 연구들이라 볼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문화와 세대경험을 연구한 함인희 교수(이화여대/사회학)에 따르면, 2000년 현재 한국사회에서 40대를 지나가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3(?)에 이른다. 한국사회에서 본격적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기 시작한 세대로서, 이들은 한 때 세상을 바꿀 수 있으리라던 기대는 이제 좌절과 불안한 세대 심리에 자리를 내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베이비붐 세대는 스스로 변화를 주도하리라고 기대했으나, 이제 변화가 그들을 압도하고 있다. 그 이전 세대를 규정짓는 경험으로 전쟁, 분단, 빈곤과 기아 등을 들 수 있다면 베이비붐 세대가 타결해야 하는 사회적 질병은 이들이 경험했던 그리고 현재도 경험하는 것으로서 전통성과 근대성 사이에 끼어 적응과 저항의 시행착오를 겪는 등 다양한 혼란과 그로 인한 '불확실성'이다.

다음으로, 386세대의 문화와 세대경험을 연구한 조대엽 교수(고려대/사회학)에 따르면, 신군부에 대한 거대한 저항을 일구어낸 '박정희의 아이들' 즉,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40대에 진입하기 시작한 386세대에게 가장 강한 영향을 주었던 것은 광주항쟁과 6월항쟁의 집합적 경험과 그 속에 반영된 문화적 요소로서 '저항'의 가치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저항의 가치에는 관념의 민중주의와 자생적 반미주의, 그리고 비판적 공동체주의라는 요소가 들어 있었다. 그렇지만 386세대들은 자신들이 가진 트레이드마크, 즉 치열한 저항성을 오늘의 변화된 새 시대에 맞게 버전업해서 각자의 영역에서 민주적 문화혁신의 주체로 새롭게 성장해야 할 쉽지 않은 요구에 직면해 있다.

한편, 한국사회가 비교적 경제적으로 풍요를 구가하는 시대에 자라난 N세대(넷세대)의 문화와 세대경험을 연구한 박길성 교수(고려대/사회학)에 따르면, 'Made in 20'라는 한 이동통신회사의 광고카피가 잘 말해주듯이, 20대에서 만들어진, 20대가 만들어간다는 이 광고는 사회중심이 변화하고 있음을 함축하고 있다. 2002년 현재, 10대와 20대 초반의 연령층 분포를 보이는 N세대는 이 시대 사회변동의 중심축인 정보화에 가장 익숙한 세대로서, 디지털 매체의 보급과 함께 성장한 최초의 세대이며, 디지털 환경을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성장한 세대이다. 그로부터 기성세대의 눈

으로 볼 때 신세대의 생활양식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아마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보다 더 많은 자원을 가지게 되는 역(逆)세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인지도 모른다. 간단히 말해, N세대 이들이 역세대화의 주역인데, 일반적으로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정치에 대체로 무관심하며, 감성에 민감해 그들만의 세계를 만들고 즐기면서 소비, 문화, 유행에 주역이 되고 있다. 동시에 이들은 인터넷을 활용하는 매니아로서 기존의 사회구성과 사회질서를 강하게 거부하는 세대이다. N세대의 정치·사회적식은 '탈정치화된 문화주의'로 요약된다. 이들은 각자의 개성을 찾아 불규칙적으로 움직이는 듯 하지만 '따로 또 같이'라는 그들만의 세계를 만들어 가는 세대로서, 하나의 정체성(identity)이나 슬로건으로 묶어 내기가 쉽지 않은 세대이다.

이제 여기서 앞에서 살펴 본 현 한국 사회의 세 주요 세대 집단 - (1)베이비 붐 세대, (2)386세대, (3)N세대 - 의 문화경험을 앞장에서 이미 다룬 바 있는 지구화시대에 나타나는 문화의 새로운 흐름 및 '문화의 세계화'를 준거로 하여 서로 비교하고 정리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비교에 앞서 세대문제의 중심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 '정체성 위기'(identity crisis)에 관한 심리학 분야의 일반론적 설명에 대해 우선 주목하고자 한다. 저명한 발달심리학자 에릭슨(Erick H. Erikson)은 <정체성: 젊은이들과 위기>에서 청소년의 정체성 위기에 대해 주목하였는데, 그는 정체성은 개인의 핵심과 또한 공동체적 문화의 핵심 양자와 관련되는 것이라고 보았다.³⁷⁾ 그에 따르면, 문화가 변동함에 따라 새로운 종류의 정체성 문제들이 출현하는데, 예로서, 지난 1960년대에는 서구의 경우 사회적 저항과 변화하는 성(gender)의 역할의 쟁점에 대해서 정체성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이로써, 필자는 에릭슨의 안목을 따라 한 사회에서 '문화변동'이 특히 젊은 층에게 새로운 정체성 문제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수용한 바탕 위에서 사회학의 정체성 개념을 정리한 것을 더하여 세 세대 집단의 문화경험을 각기 비교해보고자 한다.

사회학에서 정체성의 개념은 다차원적이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³⁸⁾ 일반적으로 말해서 정체성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누구라고 여기는지 또 자신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이해는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 의미 자원 중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속성과 연관되어 이루어진다. 정체성의 원천이 되는 것은 다양하지만, 사회학자들은 종종 두 가지 종류의 정체성 - 즉, 사회적 정체성(social identity)과 자기정체성(self-identity) 혹은 개인 정체성(personal identity) - 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이런 형태의 정체성은 분석적으로는 분명히 구분되지만 실제로는 서로 깊이 관련되어 있다.

사회적 정체성은 다른 사람이 특정한 개인에게 부과하는 성질들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집합적인 차원과 연관되어 있다.³⁹⁾ 일련의 공동 목표, 가치, 경험 등에 입각한 공유된 정체성은 사회운동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형성할 수 있다. 이렇듯 사회적 정체성은 특정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 '같음'을 드러내는 방법을 보여준다. 이에 반해, 자기 정체성(혹은 개인 정체성)은 우리를 '확실히 구분되는 개인들'로 나누어 놓는다. 자기 정체

37) Erik H. Erikson,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68.

38) 앤서니 기든스, <현대사회학>, 제4판, 김미숙 외 옮김, 을유문화사, 2003년, 47쪽.

39) 기든스, <현대사회학>, 48쪽.

성은 나와 나를 둘러싼 세계와의 관계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감정 등을 형성하는 자기 발전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문화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이 자기 정체성 형성의 요소이지만, 개별 행위자와 그의 선택도 중요한 요소이다. 오늘날의 세계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만들어 낼 전례 없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정체성의 두 종류 즉, 사회적 정체성과 개인 정체성을 문화변동과 관련지어 볼 때, 일반적으로 보아 한국의 베이비 붐 세대는 한국전쟁이후인 1953-54년부터 1960년대 초 기간에 출생한 사람들로서 동년배 집단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부터 어릴 적부터 입시 등 극심한 경쟁을 통과하였고, 이들의 가치관 확립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1970년대에는 당시를 지배한 산업사회의 '힘의 문화' 아래에서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경험한 세대이다. 그로부터 이 세대는 1980년대에는 잠시나마 안정과 성장을 경험하였으나, 1997년 IMF 위기를 계기로 현재까지 대량 실직 등 하강이동을 겪고 있으며, 특히 최근 전개되는 세계화와 정보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과거의 40대 중반과 50대 초 세대와는 달리 이미 한국의 중심 세대에서 벗어나서 계속 고립 및 주변화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도 세계화와 정보화 시대를 맞아 사회적 정체성과 연관되는 '전통적' 가치, 그리고 개인 정체성과 연관되는 '새로운' 가치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이미 중·장년이 되어 있는 이들의 경우 자신들의 독특한 사회적 경험과 그리고 나이의 증가에 따른 '보수화' 경향이 쌓여져서 대체로 집합적 차원과 연관되는 '사회적' 정체성이 개성을 추구하는 '개인' 정체성보다 한층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다른 말로, 크게 보아 이들 베이비 붐 세대의 정체성 위기 특히, 개인 정체성 위기는 그리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우리 사회에서 현재 386세대는 이들이 1980년대 대학생 시절에 정치적 저항의 주체가 되었던 것은 물론, 그로부터 10여 년 내지 거의 20년이나 지난 최근인 작년 말 치루어진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를 당선시키는 세대전(世代戰)의 핵심 세력으로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금년 9월 말에 실시된 통합신당(열린우리당)에 대한 조선일보·한국갤럽 여론조사⁴⁰⁾에서도 전체 연령층 중 30대에서만 통합신당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더 높았던 사실이 잘 증명하듯이 정치·사회 의식면에서 공유된 정체성 즉, 사회적 정체성을 뚜렷이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최근 한 인터넷 쇼핑몰사가 판매한 캐나다 이민상품에 이들이 대거 몰려 들은 사실은 이 386세대가 어떤 측면에서는 개인주의화 경향이 있음을 잘 드러내 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또한 이들 중 일부에게는 그들이 참여한 작년 월드컵 거리응원 현상에서 애국가와 태극기, 그리고 '대한민국'은 엄숙, 경건한 최대 상징물이 아니라 단지 자신들의 집합행동을 묶어주는 최소 상징물로 기능하는 것에 불과했다는 측면에서 종래의 영토적 국가사회 담론으로부터 벗어나 탈민족/국가주의적 담론을 지지하는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⁴¹⁾ 여기에다 한가지 부가할 수 있는 것은, 금년 10월 14일 신문과 방송이 대서특필한 이른바 '스와핑'(swapping) 사건의 핵심에 이 386세대가 들어있다는

40) <http://www.gallup.co.kr/News/2003/release082.html>.

41) 천선영, "‘해석의 해석’을 위하여: 월드컵 거리응원 현상에 대한 민족/국가주의적 담론 분석," <담론201>, 한국사회역사학회, 제14집, 2003, 65쪽.

다소 놀라운(?) 사실이다. 따라서 정체성의 두 종류를 갖고서 한국의 386세대의 특성을 밝힐 경우, 대체로 이들의 관심은 사회적 정체성과 개인 정체성 양자 사이에서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들은 한편으로는 이미 정립된 사회적 정체성(정치화된 저항주의)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면서도 베이비 붐 세대보다는 나이가 상대적으로 젊은 탓에 새로운 정체성 문제의 근원이 되는 최근의 문화변동의 영향을 제법 크게 받아 아노미를 일정 정도 경험하면서 개인 정체성은 새롭게 구축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N세대의 경우 에릭슨이 말하는 문화변동의 결과로서 초래되는 정체성 위기에 기본적으로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는 젊은이들로서 이들은 베이비 붐 세대나 386세대와는 뚜렷이 다르게 세계화와 정보화의 전면적 영향 아래 성장한 결과 앞에서 주목한 인터넷 혁명의 대(對)사회적·개인적 역기능이 거의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들 N세대는 급속한 세계화 및 정보화의 영향아래 개인주의적, 물질주의적, 소비주의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서 크게 보아 정체성을 구성하는 두 종류 중 집합적 차원을 갖는 '사회적' 정체성보다는 개인(자기) 정체성의 추구가 상대적으로 중시되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다. 그 결과 N세대의 일부에서는 '정체성 위기'를 경험하게 되어 심지어는 '분열된 자아' 혹은 '다중적(多重的) 자아'의 모습마저 드러내고 있다.⁴²⁾ 한편, '탈정치화된 문화주의'로 요약되는 이들의 정치·사회 의식(意識)은 다른 말로 '탈/비이데올로기적 입장'과도 통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여기서 민족/국가의 필연성과 당연성을 중심으로 세 세대를 비교해 보면, 베이비 붐 세대는 민족/국가의 필연성과 당연성을 인정하나, 386세대는 인정과 불인정이 혼란스럽게 공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N세대는 한걸음 더 나아가 그 필연성과 당연성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일반에게 우리 대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반미(反美) 성향이 강한 집단으로 알려진 가운데 고려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들 중 무려 48%가 미국 국적 취득을 희망하였다는 놀라운(?) 결과에서도 잘 나타난다 할 것이다. 또한, 이들 N세대는 무엇보다도 일상적 삶에 있어서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고, 그것은 쉽게 경박함, 무책임함과도 연관된다.⁴³⁾ 이런 맥락에서 작년 말에 치러진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2030세대의 한축을 이루는 이들 N세대의 다수가 '노사모' 등 새로운 선거 '바람'을 일으킨 사실을 상기할 수 있다. 포스트모던 문화의 영향을 받은 이 N세대가 기성 질서에 도전하는 전복의 움직임과 동시에 '그냥 재미로'를 연발하면서 성(性)을 비롯한 삶 속에서 유희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에 대하여 사회 내 기성세대 중 특히 보수 진영이나 종교계에서는 반(反)엄숙주의나 반(反)경건주의 또는 쾌락주의로 폄하하면서 비판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제 이상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현 한국의 세대갈등의 양상을 다소 거칠지만 크게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우리사회에서 인구학적으로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베이비 붐 세대, 386세대 그리고 N세대 세 집단 간에 세대갈등은 두 차원 -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 에서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집합적 차원을

42) 이 부분에 대한 경험적 차원의 검증은 다음 절(III장 2절)에서 상술할 것임.

43) 천선영, "해석의 해석'을 위하여," 69-70쪽.

갖는 공적 영역(정치나 직장 등 사회조직 부문)에서 세대갈등은 주로 베이비 붐 세대와 386세대간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두 집단 모두 동일하지는 않지만 각기 비교적 뚜렷한 사회적, 집합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고, 또한 개인적 정체성 측면에서는 386세대가 베이비 붐 세대보다 한층 더 사적 개성 및 자유를 추구하고 있는데서 연유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재신임을 묻고 싶다는 기자 회견이 있던 직후, 한 경제학 교수는 한 보수적 일간 신문의 시론(時論)을 통해 “대한민국은 대통령을 포함한 386세대들만의 것이 아니고 4천만 국민의 나라이다”라고 소회(素懷)를 피력한데서도 386세대에 대한 그 이상의 세대들의 대체로 부정적인 관점이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가족으로 대표되는 사적(개인적) 영역에서 빚어지고 있는 세대갈등은 전통적으로 유교의 영향아래 가족주의 가치가 아직 대체로 건재한 탓인지 우리 사회에서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 사이에 즉, 베이비 붐 세대와 N세대간에 세대갈등은 일반의 예상보다 그리 심각하지 않아 보인다.⁴⁴⁾ 그러나 한 사회의 가치와 규범 및 세계관 등과 관련되는 문화 부문에서는 ‘문화전쟁’이라고 부를 정도로 세대갈등이 심각한 것이 사실이다. 주로 부모 세대인 베이비 붐 세대와 자식 세대인 N세대간에 서로 선호하는 문화를 둘러싼 갈등이 뚜렷이 존재하고 있다(이 부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다음절에서 할 것임).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문화부문에서는 현재 정치·사회 의식면에서 진보를 지향하는 이데올로기적으로 좌파적 성향을 갖는 386세대와 탈정치적 문화주의를 표방하는 우파적 성향을 갖는 N세대 양자가 기이하게도 상호 흡사한 개방적, 반(反)권위적, 상대주의적 의식을 소유하고 있어서 이들 간에 세대갈등은 별로 없으며, 그로부터 젊은 층을 대표하는 이른바 ‘2030 세대’가 오늘의 한국사회에서 기성세대보다 많은 자원을 가지게 되는 역(逆)세대화의 주체가 이미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로써 한국 사회가 세계화 및 정보화가 갖다주는 엄청난 문화변동의 영향력에 전면적으로 노출된 결과 얼마 전 미국의 대표적 신문인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것처럼 현재 이혼율 증가 등 개방된 서구사회 쪽으로 급속도로 변하고 있음을 재주목하게 된다.

2. 한국 사회와 문화전쟁: 최근 드라마와 영화에 나타난

바람(불륜)의 인식을 둘러싼 세대갈등을 중심으로⁴⁵⁾

‘문화전쟁’(culture war)이란 개념은 본래 미국의 종교사회학자 헌터(James D. Hunter)가 지난 1991년에 출판한 책 <문화전쟁>으로부터 비롯되었다.⁴⁶⁾ 헌터는 당시

44) 이 같은 결과는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충북 청주시 소재 서원대학교에서 2003년도 2학기 초인 지난 9월 초에 자신이 담당한 교양과목 사회학 수강자 2개반 남녀 학생 330여 명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한 세대갈등의 경험 유무를 묻는 설문조사를 통해 기본적으로 확인한 사실이다.

45) 필자는 본 논문의 본론 중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본 절을 집필하는데 긴요한 경험적 자료를 최근 개방의 물결 속에 이른바 ‘성의 혁명’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는 20대 남녀 젊은이들로부터 직접 얻기 위해서 2003년도 2학기에 필자가 직접 가르치게된 사회학 수강생 330 여명에게 레포트를 부과한 바 있다. 즉, 사회학 교재의 내용 중 세계화, 문화, 사회화, 성과 가족 등과 상호 관련되는 흥미있는(?) 주제로서 “최근 한국 사회의 드라마와 영화에 나타난 바람(불륜)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하여 자신의 솔직한 관점이 나 생각을 펼쳐 볼 것을 주문하였다. 그로부터 본 절은 이들 레포트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음을 밝힌다.

미국인들이 도덕성과 사회적 규범의 쟁점에 대해서 크게 양분된 것을 주목하였다. 또한 베네트(William Bennett)⁴⁷⁾는 1994년 출판된 <미국의 저하(低下)>에서 리버럴한(자유주의적인) 엘리트와 나머지 사회 사이에 미국 문화를 놓고서 싸움이 벌어진 것에 대해 초점을 모았다. 베네트는 미국 역사 속의 전통적 엘리트 집단과 달리 리버럴한 엘리트는 일(노동), 검약, 성적(性的) 억제 및 자기 통제에 대한 전통적 부르주아의 강조를 거부하는 학자, 지식인, 문인, 정치평론가, 할리우드에 있는 영화감독, 예술가, 주류(主流)의 종교(기독교) 성직자 및 기자/언론인들이 다수를 차지한다고 보았다. 간단히 말해서 이들 리버럴한 엘리트들은 이른바 ‘아메리칸 드림(the American dream)’이라 불리는 것 즉, 미국적 이상(理想)에 대하여 완전히 거부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왔다.

헌터는 베네트와는 약간 다르게 미국의 문화전쟁에는 싸움의 양 진영 모두에 각기 엘리트가 있다고 본다. 즉, 한편은 그가 말하는 ‘정통적’(orthodox) 집단이고 다른 한편은 ‘진보적’(progressive) 집단인데, 진보주의자들은 모더니즘, 합리주의 및 주관주의에 의해 정의된다. 이 진보주의자들에게 진리는 ‘변함없는 권위’라기보다는 일종의 ‘과정’(process)일 뿐이다. 헌터가 보기에 이 두 집단의 엘리트 사이에 존재하는 진짜 차이는 ‘신앙’(faith)의 수준에 있다. 간단히 말해서, 헌터에 따르면, 문화전쟁은 ‘세계관’(worldviews)의 싸움이어서 서로 다른 세계관이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을 다르게 보도록 만들어 준다. 필자는 본 절에서 최근 우리사회에 불고 있는 이른바 ‘바람’(불륜)과 ‘성’(sex)의 문제를 중심으로 ‘세대간’(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간) 및 ‘사회집단간’(보수적 종교계와 진보적 문화계) 인식의 심대한 차이 곧 일종의 ‘문화전쟁’이 나타나고 있는 사실을 주목하여 논의할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한국의 문화전쟁이 물론 미국의 그것과는 역사적 차원에서 차이가 있지만, ‘리버럴한 엘리트’와 ‘나머지 사회’를 갈라 생각한 베네트보다 문화전쟁의 핵심에는 ‘세계관’의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정통파(보수파) 엘리트’와 ‘진보파 엘리트’를 구분한 헌터의 접근이 보다 정확하다고 판단하여 대체로 헌터의 접근을 따르는 기조 속에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우선 필자는 아래에서 최근 보수적인 주요 일간 신문에 실린 두 개의 흥미있는 관점을 내비친 남녀 필자의 글과 그리고 젊은 층이 주 독자인 <굿데이>에 실린 도발적 기사(비 “너랑 자고 싶어” 파격기사 파문) 한 개를 차례로 인용하는 것으로부터 논의를 출발하고자 한다.

최근에 한국사회의 성·결혼·가족문제에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는 영화, 드라마와 많이 만나게 된 것이 사실로서, 드라마 ‘옥탑방 고양이’는 혼전동거가 결혼의 예비적인 검증절차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를 불러일으켰고, 영화 ‘싱글즈’는 자유롭게 성을 즐기는 화려한 ‘싱글’이 결혼을 우회해서 쿨한 ‘싱글맘’에 이르는 과정을 그렸다. 드라마 ‘앞집 여자’는 젊은 부부의 맞바람을 ‘명랑불륜 코미디’라는 컨셉션으로 담아내서 장안의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술 더 떠서 영화 ‘바람난 가족’은 남편, 아내, 시어머니가 동시다발적으로 바람이 난다는 어느 콩가루 집안의 이야기다. 혼전동거, 싱글

46) James D. Hunter, Culture Wars: The Struggle to Define America(New York: Basic Books, 1991).

47) William Bennett, The De-Valuing of America, Colorado Springs, CO: Focus on the Family Publishing, 1994.

맘, 맞바람, 콩가루 집안으로 이어지는 맥락이 무척이나 의미심장하다... 이들 영화와 드라마는 기존의 결혼과 가족, 더 나아가서는 일부일처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전과는 분명한 차이점을 갖는다... 성·결혼·가족과 관련된 하나의 지배적인 질서가 아니라 다양한 태도와 생활양식이 공존하는 양상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회가 또 하나의 역사적인 문턱을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⁴⁸⁾

요즘 한국인들의 결혼생활을 보면 매우 당혹스럽다. 모 리서치 결과에 따르면, 기혼남 42%, 기혼녀 19%가 외도를 했다고 한다. 게다가 만족스런 부부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혼남녀 중 기혼남의 83%, 기혼녀의 49%가 배우자와의 이성과의 만남을 원하고 있다. 요새 인기있는 모 TV 드라마에서는 마치 외도는 지루한 결혼생활의 청량제인 것처럼, 앞집·윗집·아랫집 남녀가 모두 혼외관계를 가지고 있다... 비교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일부일처제는 남녀의 성적·정서적 욕구에 만족스럽지 않다고 한다. 그렇다고 외도와 결혼의 공존이 한국인의 문화적 선택인가. 외도가 결혼에 필수적인 것이 되기 전에, 결혼이 한국인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묻고 싶다.⁴⁹⁾

"너랑 자고 싶어!" 가요계에 또 하나의 "선정성 논란"이 일어날 전망이다. 그 "태풍의 눈"은 가수활동을 넘어 KBS 2TV 월화드라마 <상두야 학교가자>로 최고의 인기를 구가 중인 "비"의 2집 앨범. 최근 선보인 이 앨범에는 "너랑 자고 싶어!"라는 노래말이 들어 있는 파격적인 곡이 수록돼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 노래는 지난 3월 박지윤의 6집 <Woo~ twenty one>에서 "할 줄 알어?"를 수록해 영상물등급위원회·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와 크게 충돌했던 국내 톱 프로듀서 겸 가수 박진영이 직접 가사를 쓴 것으로 밝혀져 더욱 관심을 모은다.

문제의 노래말은 "예쁘게" 사귀어오던 커플 중 한명이 상대방에게 밤을 같이 보내고 싶다고 전하는 내용이다.⁵⁰⁾

필자는 앞 부분에서 '세대'를 한국사회의 연령집단에 의한 일종의 사회 계층이라고 보면서 세대간 갈등 양상을 몇 가지로 크게 정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반도 쉽게 감지할 수 있는 공적 영역의 세대갈등과 구별되는 것으로서 새로운 현상으로서 특히 최근 들어 '문화'(세계관)와 관련된 '사적' 영역에서 점차 증폭되고 있는 '세대갈등'에 주목한 바 있다. 곧, 현재 문화 부문에서는 헌터가 말하는 '문화전쟁'('세계관'의 전쟁)이라 부를 정도의 세대갈등이 제법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에릭슨의 주장을 따라, 지구화시대 문화변동이 특히 한국 같이 인터넷 최강국임을 자랑하는 정보혁명의 환경이 갖다준 세계에서 가장 조밀한 인터넷 통신망 속에서 성장한 우리 젊은 층에게 새로운 정체성 문제의 가장 중요한 직접적 근원이 될 수 있다고 보는 필자는 이 사실을 얼마 전 20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전쟁'을 주제로 부과한 레포트의 내용을 분석

48) 김동식(남, 문학평론가), "성·결혼, 그리고 가족", <조선일보>, 2003년 8월 29일자.

49) 윤택림(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결혼, 우리에게 무엇인가", <조선일보>, 2003년 8월 10일자.

50) <굿데이>, 2003년 10월 17일자.

한 것으로부터 경험적 차원에서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서원대학교의 소재지는 충북 청주시이지만 주로 경인지역 고교 출신인 이들 남녀 대학생(만 18세-26세)의 약 30% 가량은 최근 한국사회의 영화와 TV 드라마 등에 거세게 불고 있는 '바람'(불륜) 현상에 대해서 여전히 '보수적'(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었다. 곧, 이들은 정절 및 일부일처제와 가족제도의 중요성을 지지하고 신세대의 트렌드처럼 이야기되는 혼전동거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감을 나타내 보이면서 선정주의에 빠진 매스컴의 무책임한 작태를 비판하는 등 대부분의 보수적인 기성세대의 의식과 별 차이가 없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전체의 무려 20% 가량 되는 적지 않은 수의 남녀 대학생들은 한국사회의 '바람' 문제에 대하여 대체로 놀랍게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몇몇 학생의 당돌하면서도 도발적인 진술들에 잘 나타난다.

(1) (25세 남학생) 점점 더 우리 사회에 바람 또는 외도라는 것이 당연시되는 것이 확산된다는 것을 나는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갈수록 삭막해지는 이런 사회 문화 속에서 한사람과의 사랑이 계속 지속된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다. 결혼을 해서 살아가면서 그 사랑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문제가 아니겠지만 점점 스피디한 것을 추구하는 요즘 세상에 또한 스피디한 사랑이 있는 것이 당연하고 그러한 스피디한 사랑이 결혼을 해서 오래 못 가고 또 다른 사랑을 찾아서 간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20세 남학생) 불륜은 본인 이외엔 이해할 수 없는 잘못된 길이라 생각한다. 쉽게 말해 지금 여자 친구가 있으면서 다른 여자가 더 좋아져서 바람을 핀다는 것은 이해될 것 같다. 비록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도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바람을 필 수 있을 것 같다. 막말로 나도 바람을 필수 있을 것 같다.

(3) (22세 여학생) 바람과 이혼율을 줄이기 위해 동거는 정말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동거라는 개념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지 말고, 결혼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줬음 좋겠다. 동거를 해보고 정말 이 사람이다 싶은 사람과 결혼을 한다면 이혼율도 바람피는 것도 어느 정도 줄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4) (20세 여학생) 동거에 대한 내 생각은 요즘 신세대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다. 동거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쉽게 사랑하고 동거하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인식하는 결혼이라는 것이 바뀌고 있다.

(5) (21세 여학생) 불륜의 해결방법은 무엇일까? 모순적일지 모르겠지만 불륜을 해결하는 방법이 동거라고 생각한다. 내가 말하는 동거는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를 말한다. 외국의 경우에는 동거라는 문화가 자리잡혀 있다. 그래서 결혼을 더욱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한다.

(6) (22세 여학생) 10년 전과 지금은 한국사회는 성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 가고 있는데 바람을 굳이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바람을 필 능력이 있다는 것은 가정을 지킬 능력이 있다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생각 속에서 내가 내린 결론은 불륜은 오늘 내가 어떤 외투를 걸치고 외출할 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7) (20세 남학생) 나는 너무 힘든 일상과 다른 일들을 가정에서도 편히 풀 수가 없고 그렇다면 바람과 같은 식의 해소 방법도 가능하다고 본다.

(8) (20세 여학생) 미국에서는 개방결혼(부부 각자가 다른 이들과 성적으로 교제하는 것을 허락)이 잘 자리 잡았듯이, 불륜(바람)을 아주 나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인식이 다시 잘 박히고 서로를 배려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결혼생활에 윤택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9) (20세 여학생) 결혼을 해서 그 배우자 외 다른 상대와의 호기심이 생기고 욕구를 채울 수 없어서 다른 상대와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바꾸어 이해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는 아직 성문화나 사회가 변하는데도 보수적인 생각들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무조건 이런 것을 나쁘게 볼 것이 아니다.

(10) (20세 남학생)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일부일처제의 결혼제도는 인간의 기본 욕구조차도 해결해주지 못하는 족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젊은 나이의 남녀가 자신의 욕구를 잠재운 채 결혼생활을 진행시켜 나갈 때, 가정을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외도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 결혼을 해서 자신에게 배우자가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은 한 가정의 남편, 아내이기 이전에 한 남성이고 여성일 뿐이다. 어찌보면 외도란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무시한 채 만들어진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악이라고 할 수 있다.

(11) (22세 여학생) 한 남자의 아내로 지내다가 자신의 생각이나 의도와 맞지 않는 다른 남성과의 만남 자체가 나쁘고 불결하다는 생각은 너무 일방적이고 폐쇄적이란 생각이 든다. 나는 외도에는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한 쪽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에 일부일처제라는 이유로 참아야 한다는 것은 불공평하고 법의 남용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한편, 이상과 같은 바람(외도, 불륜)에 대한 '긍정적' 입장과는 약간 달리 한편으로는 '부정적'으로 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중적' 혹은 '자기모순적'인 혼란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대학생들도 적지 않게 있음을 주목하게 된다. 필자가 레포트의 내용을 토대로 집계한 결과 전체 학생의 약 10% 가량은 이 같이 이중적인 인식 속에 아노미적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한층 내밀한 분석이 요구되는 측면을 담고 있는 대표적 사례들이다.

(1) (20세 여학생) 바람에 대한 나의 의견은 그렇게 나쁘게까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평생 한사람에게 정착하여 사는데 새로운 사람을 잠깐 만나는 것이 무엇이 그리 나쁘다는 것일까? 잠깐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말이다... 이렇게 무의미하게 삶을 보낼 바에는 잠깐의 휴식으로 '내 아내 아닌, 내 남편 아닌 사람'에게 눈을 돌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불륜이라는 것은 사회에서 없어질지도 모르겠다.

(2) (22세 여학생) 결정적으로 인터넷의 확산이 성문화 변화의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불륜은 나쁜 것이라고 하면서도 배우자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바람을 펴도 상관없다"는 모순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많은 이들이 혼외정사 경험이 있는 실정에서 잠깐의 외도가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다. 나는 바람을 굳이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3) (20세 여학생) 이 두 가지 경우(바람이나 외도)에 대해서 답을 내는데 정리가 되지 않고 복잡하다. 머리로 이해가 되지만 말로 표현하기 힘든 것 그것이 도덕적이고 윤리가 아닌가 싶다. 도덕적으로 외도가 나쁜 것이라는 사실은 초등학교도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 주변을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외도 아닌가? ...

이로써, 바람(불륜, 외도) 및 혼전동거 등에 대해서 대학생들 중 약 20%가 뚜렷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또 약 10% 가량이 대체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신세대 대학생의 세 명 중 한 명 꼴인 약 30%가 보수적인 기성세대의 눈으로 볼 때는 전통적인 일부일처제의 정당성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이것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놀랄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런 맥락에서 신학기 대학가의 게시판이나 벽보 등에서 '남녀 불륜, 룸메이트 구함'이라는 문구를 많이 볼 수 있는데서 쉽게 알 수 있듯이, 신세대에게 이성간 동거가 특별한 현상으로 여겨지지 않고 있는 것이 이제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제 필자는 '한국사회와 문화전쟁'에 관한 본 절을 마무리하면서 한 전형적 신세대 여학생(23세)이 우리 사회의 '바람'문제를 최근 이야기되고 있는 젊은 층의 새로운 '놀이문화'와 연관지어 자신의 생각을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부분을 다소 길지만 인용하고자 한다. 이 학생은 필자가 앞에서 주목한 지구화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의 N세대의 새로운 문화경험을 그대로 잘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요즘 사회에 드러나고 있는 외도 문제에 대해 난 차라리 더 잘되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계속해서 숨기고만 있다면 골이 더 깊게 패일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과거의 불륜이나 외도는 결혼생활 내지는 가정생활에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탈출구 또는 해방구로서의 역할을 해왔으나, 이제는 아무 문제없이 그런대로 행복하게 지내는 가정에서조차 외도가 일어나고 있다. 일상의 권태로움을 벗어나 새로운 삶을 느껴보고자 하는, 뭔가 새로운 삶을 재발견하고 주체적으로 자기 정체성을 찾아보고자 하는 모습의 일환으로 불륜과 외도가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 '주노명 베이커리'라는 우리나라

영화에서는, 잠깐의 외도는 오히려 삶의 활력소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까지 전달하고 있다. 이런 사회의 흐름에 따라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해체, 혹은 붕괴가 시작된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로 인해 한가지 분명한 것은 배우자의 또 다른 사랑을 바라보는 데는 윤리적 잣대만이 가장 유용한 도구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이다. “어떻게 파렴치하게 바람을 피울 수 있어?”, “배우자와 자식들이 겪을 고통을 생각해 봤어?” 등의 훈계는 이제 현실과는 너무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점점 더 개방되어 가고 있는 풍토 속에서 영화와 드라마에 나타나고 있는 외도에 관한 문제 역시 사회가 한 발짝 발전되어 가기 위해 사회전체를 흔들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⁵¹⁾

IV. 결론: 한국의 문화전쟁 및 세대갈등의 극복은 가능한가?

최근 "너랑 자고 싶어!"라는 가사로 가요계에 또 하나의 "선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수 겸 프로듀서로 주목을 받고 있는 박진영은 일찍이 "사랑하는 사람끼리의 성관계는 즐거워야 한다.", "성관계는 게임에 불과하다."라고까지 말한 바 있다. 그는 자신이 만든 박지윤의 6집 앨범 "Woo~ Twenty One"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19세 미만) 이용 불가 판정'을 받은 데 대해 지난 2003년 10월 7일 처음으로 자신의 언짢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 문제로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과도 마찰을 빚은 그는 '박지윤 앨범 심의에 관하여'라는 A4 한 장 분량의 글을 통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판정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고 한다.

또한, 필자가 실제로 최근에 다수의 대학생들과 대화를 통해 확인한 사실로서, 동거를 놓고 최근에 토론을 벌였다는 한 여대생은 "동거 반대라는 말만해도 수구꼴통에 반(反)개혁 반(反)페미니즘적이라고 찍히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는 남녀가 동등해야 마땅한 터에 여자만 헤프다는 낙인이 찍힐까봐 두려우냐는 비판이 돌아온다는 얘기다. 그런데 이런 현상과 관련하여 한국의 진보적 여성운동단체를 대표하는 집단으로서 지난 김대중 정권 이래 현재까지 계속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는 여성 민우회 측의 미디어 운동본부 강혜란 사무국장은 "혼전 동거나 혼외정사 등의 소재가 남녀평등과 관련해 가부장적 제도 아래서 가지고 있는 전형화된 사회질서를 깨는데 기여한 바는 분명 있다고 보며 이를 방승으로 만드는 것 역시 큰 무리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로써, 서구주도의 세계화, 정보화, 개방화가 갖다준 문화변동의 전면적 영향아래 개인주의의 가치관을 수용한 젊은 층일수록 바람(불륜, 외도)은 물론 혼전동거와 심지어는 동성애를 찬성하는 비율이 현저히 높은 현실에서, 앞에서 잠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사회의 진보적(?) 문화계 인사들이 이 같은 흐름을 비판하기보다는 오히려 지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주목할 수 있다. 일찍이 국가가 '강제'보다는 '이데올로기'를 통해 더 큰 지배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본 그람시(Antonio Gramsci)의 영향아래 최근 생성된 이른바 '문화적 맑스주의'(cultural Marxism)에서, 계급투쟁은 문화영역 - 교육, 이

51) 김모양, <사회학개론 레포트>("최근 한국 사회의 영화와 드라마에 나타난 '바람'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2003년 10월 10일 제출. 인용부분 중 밑줄은 레포트 작성자가 아닌 필자가 강조를 위하여 부가한 것임.

념, 태도, 기호, 신념, 어투, 의상 등 -에서 일어난다.⁵²⁾ 따라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계관'의 전쟁이라 볼 수 있는 문화전쟁 및 세대갈등은 단순히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 간의 마찰이나 싸움이라고만 볼 수 없다. 문제의 핵심은 외적으로는 본 논문의 II장에서 이미 깊숙이 주목해본 바와 같이 세계화와 정보화가 초래하고 있는 우리가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사실상 거의 없는 거시적 '문화변동' 외에, 내적으로는 한국사회의 신문과 방송간의 싸움, 보수 일간지 '조·중·동'과 한겨레 신문 등 진보적 신문 및 진보적 인터넷 매체간의 싸움 등을 포함하여 한국사회의 '보수'와 '진보' 진영 사이의 오래된 이념적 대립구도와도 복잡하면서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⁵³⁾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이념적 갈등과 세대갈등은 어느 정도 서로 섞여 있다할 것이다.⁵⁴⁾

그렇다면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의 종교계 특히 기독교(개신교) 즉, 한국 교회 진영에서는 현재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당혹스러운 세대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거나 풀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필자는 우리 사회보다 거의 한 세대 전에 이미 '성의 혁명'과 이혼율 급증 및 가족 해체를 경험한 미국에서 최근인 지난 1990년대 초반에 '가족'(the family)이 놀라게도(?)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진영에서 쟁점이 된 사실에 주목하고 싶다.⁵⁵⁾ 주지하듯이,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진보적 정치권, 진보적 사회과학 그리고 진보적 종교 이 삼자는 1960년대, 1970년대, 그리고 1980년대 기간 중에는 이혼, 혼외출산, 재혼가족, 편부/편모 같은 가족 변화가 아이들과 그들의 부모 어느 한쪽에도 해롭지 않고 오히려 성인(어른)의 자유를 증대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1990년대에 이르러, 사회과학의 연구들은 주로 '협소한 개인주의'의 심화와 '시장 경제'의 확산의 결과 초래된 이혼 등의 가족변화는 평균적으로 아이들과 어머니들에게 해가 됨을 보이기 시작했고⁵⁶⁾, 리버럴한(진보적인) 정치문화계도 가족 변화가 갖다준 현실적 문제

52) 터너 등, <사회학이론의 형성>, 208쪽.

53) 필자가 최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매스컴에 일고 있는 불륜의 바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물었을 때, 약 30 퍼센트나 되는 적지 않은 학생들이 불륜의 바람을 부정적으로 보면서 현재 한국에서 증가일로에 있는 성개방풍조의 상당한 책임이 무엇보다 매스컴에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미국의 경우, 현 미국이 문화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몰락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미국인이 동의하나, 그중 일부는 이것에 대해 매스 미디어가 별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미국의 문화적/도덕적 붕괴의 상당한 책임이 대중매체 특히 영화와 비디오 같은 '오락산업'(the entertainment industry)에 있다는 것을 흥미있게 파헤친 글로서, Michael Medved, *Hollywood vs. America*, New York: HarperPerennial, 1993을 볼 것.

54) 이런 맥락에서 오늘의 미국사회에서 일부일처제 논란, 동성연애 합법화 논쟁 등 각종 성문제를 둘러싸고 계속 가열되고 있는 보수와 진보간 '문화적 정치'(cultural politics)를 중립적 입장에서 취급한 사회학자의 글로서, Steven Seidman, "Contesting the Moral Boundaries of Eros: A Perspective on the Cultural Politics of Sexuality in the Late-Twentieth-Century United States", in Neil J. Smelser and Jeffrey C. Alexander, ed., *Diversity and Its Discontents*,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9, pp. 167-190을 볼 것.

55) Don S. Browning, et al., *From Culture Wars to Common Ground: Religion and the American Family Debate*, second edition, 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0, p. 21.

56) 이런 측면에서 사회학자 이병혁 교수(서울시립대)는 최근 한국사회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마구잡이로 이뤄지는 성매매는 이미 대중적인 일상문화로 자리잡았다고 보면서, 풍문에 팔려 다니는 10대, 20대의 성매매는 주로 그들 대부분이 부모가 이혼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밝혀낸 바 있다. 즉, 사이버상에서의 매춘은 가족해체 현상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병혁, "현대 한국의 사회문제와 개혁과제", 책임편집 김필동, <한국사회발전연구>, 나남출판, 2003, 247-264쪽, 특히 257-258쪽

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었다. 1980년대만 해도 가족은 통상 보수적인 정치적 쟁점이었으나, 1996년에 이르러 민주당의 신(新)자유주의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그렇지만 2003년 현재 미국의 주류(主流) 종교를 대표하는 진보적 개신교 진영에서 이 같은 변화를 따라갈 지는 아직 뚜렷하지 않다.

현재 미국의 수많은 사회과학자들, 정책입안가들, 정치가들 및 교회 지도자들은 이혼율 증가 등 가족 해체를 초래한 주원인인 지나친 개인주의의 심화와 세계화로 인해 가속화된 시장 경제 같은 흐름을 거꾸로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 달리 말해, 이들은 현 미국의 상황에서 가족 해체는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도 인정하듯이, 이 같은 문제적 흐름이 서구 사회로부터 한층 가난한 나라들로 퍼져가서 해당 사회를 황폐화시킬 것이란 사실이다. 그로부터 현재 이들은 가족 해체를 불러일으키는 제반 세력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도 사실상 가능하지 않지만, 그래도 가족 해체를 '경감'시키려고 온갖 노력을 하고 있다.⁵⁷⁾

한편, 종교사회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 중 본래부터 개인주의와 자립을 강조하는 프로테스탄트(개신교) 교회 특히, (한국 교회가 좋은 범례가 되는) 종파주의의 에토스(ethos)와 복음주의의 에토스를 갖는 개신교회는 인간이 죄를 면하려면 개인들이 제각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믿는다.⁵⁸⁾ 그래서 개신교회는 성직자들이 개인의 책임을 떠맡는 가톨릭보다 한층 더 절대적 가치 특히 도덕의 측면을 준수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로부터 대부분의 개신교회는 신도들이 선행(善行)을 쌓으면서 가능한 한 악한 사람들과 부정한 제도와 관습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인다. 또한 그들은 사회·정치 드라마를 도무지 화해가 용납되지 않는 '도덕극'(morality play) - 신과 악마와의 영적 전쟁 - 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수많은 국가들 중 프로테스탄트의 금욕주의 경향이 강한 나라들에서 알코올 음료와 도박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조치가 취해지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필자의 주의를 끄는 것은 아직 그 결과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최근 미국에서 역사의식과 종교적 신념을 갖는 일단의 보수적 기독교 신앙인들이 이른바 '문화운동'(cultural movements)의 힘과 '종교문화적 변화'(religiocultural change)의 가능성을 믿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이다.⁵⁹⁾ 이들 중 리더 그룹의 대표들은 미국 시카고대 신학부의 브라우닝(Don S. Browning) 교수 등 대부분이 신학대학에서 종교윤리와 사회과학, 목회신학과 카운셀링(상담), 실천신학 등을 가르치고 있는 현직 교수들이다. 이로부터 필자는 한국의 경우에도 미국의 사례에서처럼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보수적 기독교인들 특히 문화전쟁과 세대갈등을 극복하는데 관심을 갖는 기독교 진영의 뜻있는 성직자, 신학대학 및 일반대학의 교수, 언론인, 문화계 인사, 청소년 지도자

볼 것.

57) Frank Furstenberg and Andrew Cherlin, *Divided Familie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1.

58) Seymour Martin Lipset and Garbriel Salman Lenz, "Corruption, Culture, and Markets," Lawrence E. Harrison and Samuel P. Huntington, ed., *Culture Matters: How Values Shape Human Progress*, New York: Basic Books, 2000, p. 121.

59) Browning, et al., *From Culture Wars to Common Ground*, pp. 21-22.

및 교사 등을 주축으로 하여 성령운동의 일환으로서 ‘기독교문화운동’을 다방면에 걸쳐 실시하는 방안이 현시점에서 매우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싶다.⁶⁰⁾

아울러 급변하는 21세기인 오늘을 맞아 아직도 폐쇄적인 전통적 커리큘럼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개신교단 신학교들도 차제에 미래를 지향하면서 예비성직자들인 젊은 신학생들을 위해 실질적이면서도 현실적합성을 한층 높이는 방향으로 교과과정을 개편하는 것 - 한 예로서, 본 논문의 키워드인 ‘세계화’ ‘정보화’ ‘문화변동’ ‘세대갈등’ 등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회과학 분야 과목 증설 - 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본다. 미국의 종교사회학자 벨라(Robert N. Bellah)의 안목을 따라, 사회의 진정한 혁명은 경제나 사회제도를 바꾸는데 있지 않고 ‘문화’의 혁명에 있는데, 그 문화의 열쇠가 되는 것이 바로 ‘종교’라는 단순하면서도 의미심장한 말로서 본 논문의 결론을 마치고자 한다. 현시점에서 심각한 수준의 도덕적 아노미를 겪고 있는 오늘의 한국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뀌는데 긴요한 종교문화적 변화를 회구하는 사람들이 문화전쟁과 세대갈등을 주목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기독교 진영에서 많이 나오게 되길 기대한다.

=====

약력

현 서원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전공: 종교사회학, 문화사회학, 해외 지역연구

영국 헐대학 사회학박사

캐나다 토론토대학 한국학 객원교수 역임

저서: 종교와 이데올로기, 종교와 사회, 싱가포르의 사회와 문화, 캐나다의 문화와 사회 등.

60) 한국의 대표적 성직자 중 한 사람으로서 필자의 이 같은 주장과 인식을 같이 하는 사례로서, 미국 L.A. 소재 남가주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여 크게 부흥 성장시킨 오정현 목사가 지난 2003년 9월 초 서울 사랑의교회(예장 합동측)에 육한흠 목사를 이어 새로운 담임목사로 부임하였는데, 그는 지난 2003년 9월 13일 기독교 방송TV를 통해 방영된 “말씀하시는 하나님”(성경 본문: 사도행전 10장 44절-5절)에서 “최근 미국에서 있다가 고국으로 들어와서 보니 한국사회가 세대갈등 곧, 2030과 5060 간의 갈등으로 인해 흔들흔들 하는데, 이것은 문명사의 말기 증상이며 은혜의 홍수가 물려와야만 해결된다”고 하여 결국 현 시점에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함을 역설한 바 있다.